

# 웅진에너지, 웨이퍼 수요증가 “수혜”

## LIG투자증권, 모노 웨이퍼 비중도 48%로 ... 2011년 순이익 급증할 것

LIG투자증권은 11월23일 웅진에너지에 대해 고효율 태양전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를 2만1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유석 연구원은 “웨이퍼 시장규모는 2010년 20.2GW에서 2013년 42.7GW로 연평균 28.3% 성장하고, 특히 고효율 모노 웨이퍼(Mono Wafer)의 비중이 2010년 45%에서 2013년 48%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효율 모노 웨이퍼를 생산할 웅진에너지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썬파워(SunPower)와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된 것도 웅진에너지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율러 증설로 2011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8.9% 증가한 1050억원, 순이익은 86.7% 증가한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주가 2만1000원은 2011년 영업실적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PER) 15.4배에 해당해 현재 주가 대비 상승여력이 15.1%에 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3>